BABNANA

Home Meal Sharing Service

인터페이스 디자인 | 구동완 김지수 김효준 백서영 최정인

발표순서

프로젝트 컨셉

사용자 정의

사용자 분류

예측되는 모형 (페르소나)

정황시나리오

주요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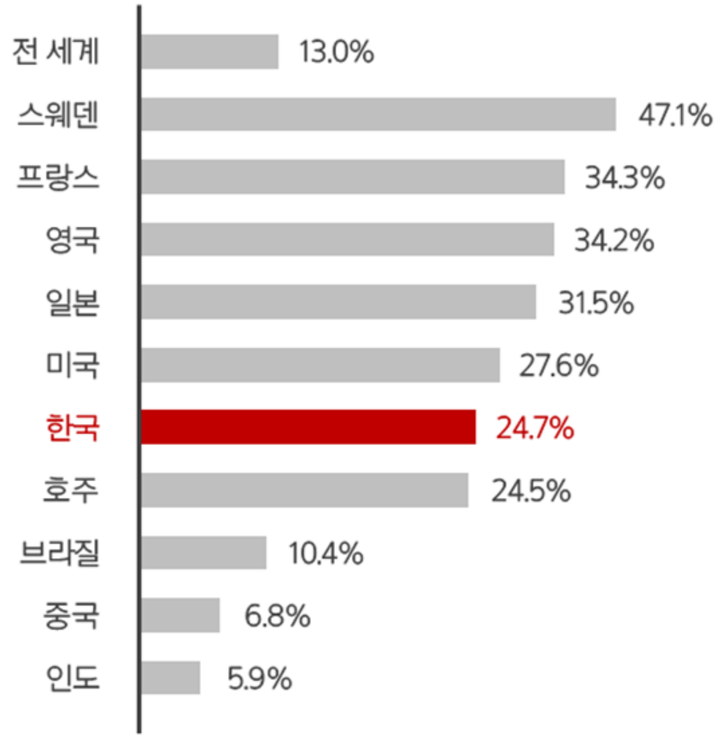
리서치설계 (인터뷰 문항)

BABNA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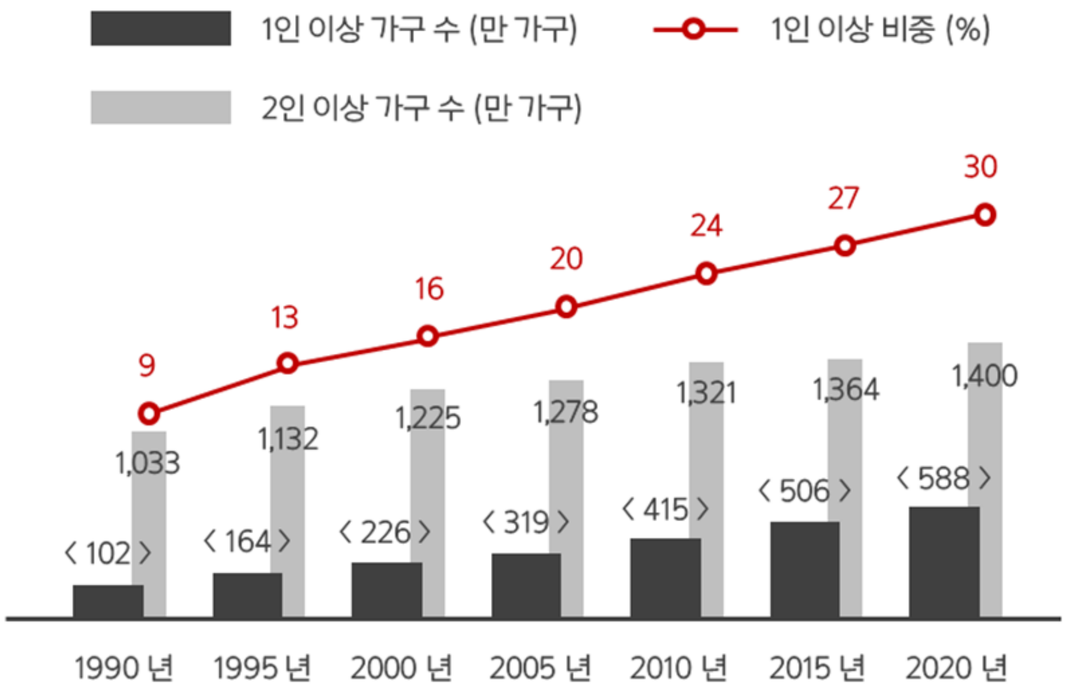
Home Meal Sharing Service

PROJECT CONCEPT

국가별 1인 가구 비중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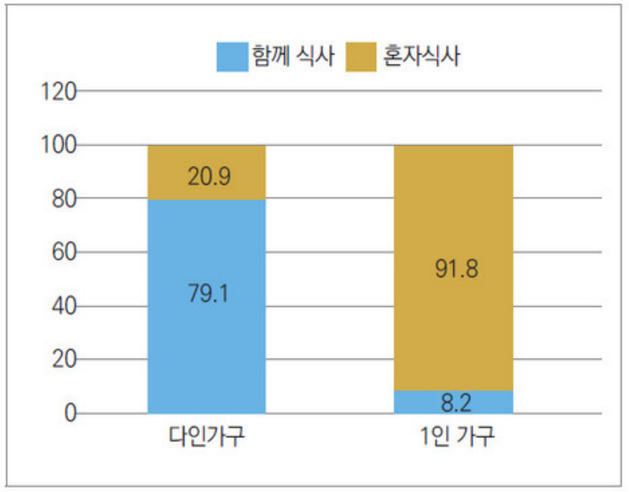


한국 1인 가구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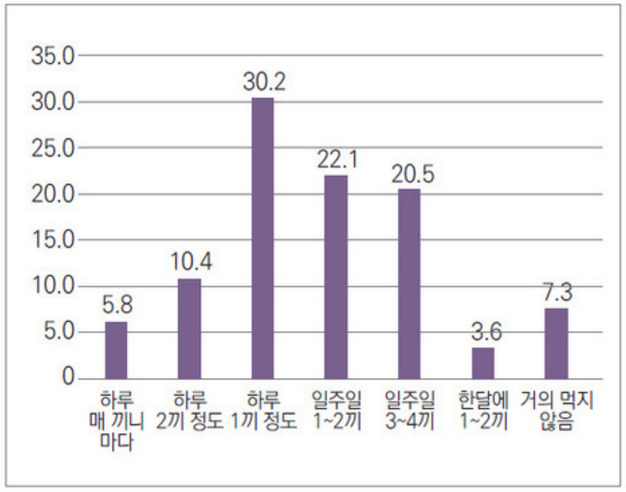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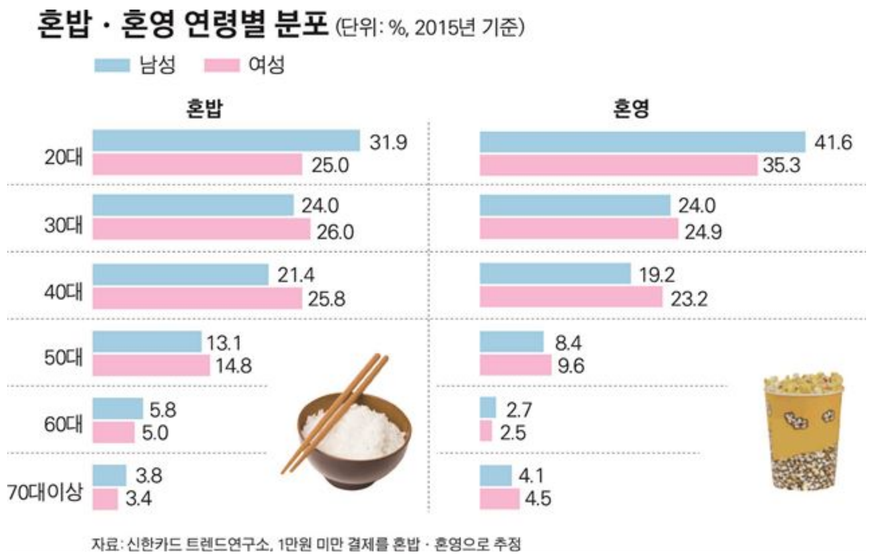
PROJECT CONCEPT

[그림 2] 혼자식사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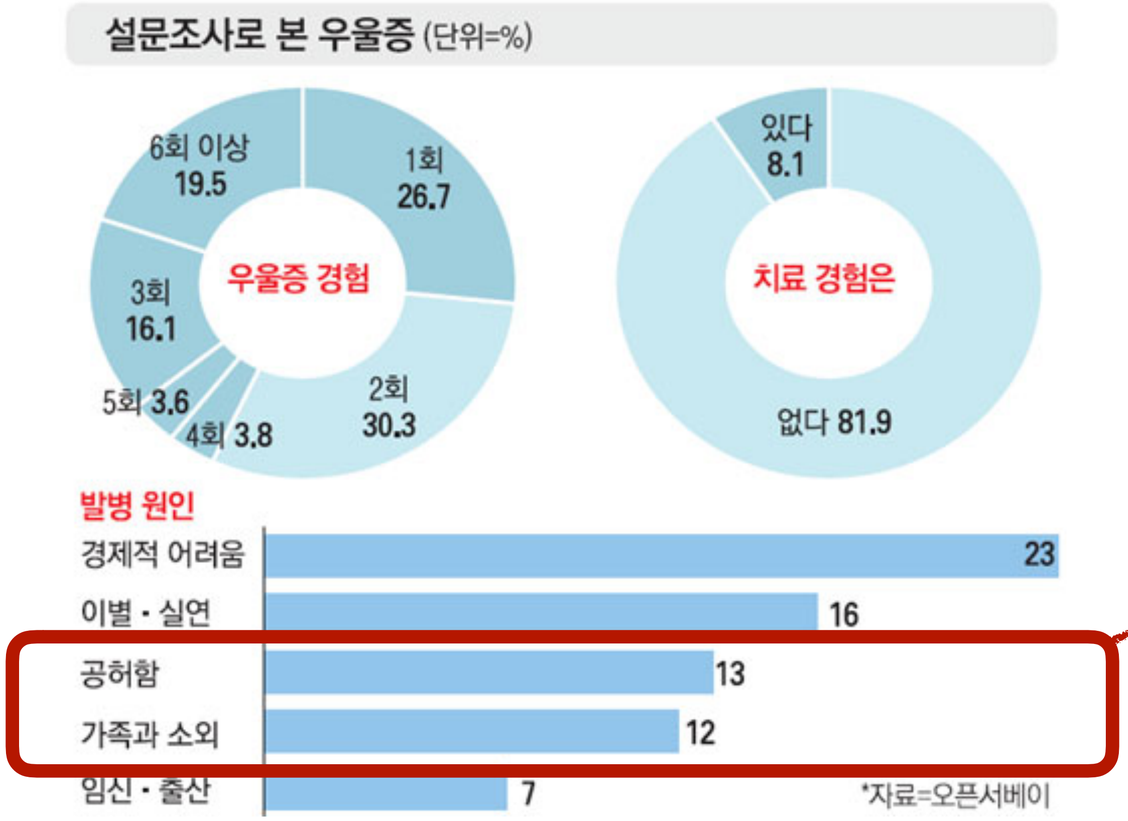
[그림 3] 세끼 식사 중 혼자식사 비율(%)





자료: 신한카드 트렌드연구소, 1만원 미만 결제를 혼밥 · 혼영으로 추정

PROJECT CONCEPT



3. 공허함

4. 가족과 소외

VALUE

Home Meal Sharing

Role

원자화된 사회에 **완전한 식사를 매개로 한 소통의 기회** 제공

Boarding House + Homestay

Sensibility

사회가 파편화되고 원자화되어 1인가구의 비율과 남녀 혼밥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구성원과의 소외, 공허함은 우울증 증가의 주요 발병 요인이 되고 있다. (가족식사를 자주 하는 집단이 그렇지 못한 집단에 비해 일상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가족 간의 친밀감 증대 및 정신적 안정감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음 – 출처 논문. 가족식사의 식생활만족도가 삶의 질 및 가족건강성에 미치는 영향) 이러한 흐름 속에서 집밥은 현대인의 독립에 대한 갈망과 고립의 두려움 사이에서 찾아 낸 해법일 수 있다. (출처 논문. 소셜다이닝(Social dining) 참여자들의 집밥의 가치와 소셜다이닝 참여 동기가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VALUE

참여자의 주변인이 참여자를 이해, 지지해주며 참여자의 자발적 참여 가능성과 참여가 용이하면 소셜 다이닝 참여 의도는 증가 될 것이다. 행복감, 자기존중감, 인간관계, 가족애 등 의 집밥의 가치는 즐겁고, 가치 있고 유용할 것이라는 결과의 기대감과, 참여 자가 소셜다이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주변인이 이해하고 호의적으로 판단하며 함께 참여하며, 참여자의 소셜다이닝에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높고 참여하는 것이 용이함을 통해서 소셜다이닝 참여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셜다이닝 참여자들이 소셜다이닝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이해와 관심이 필요하며, **참여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참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요구된다.**

Source_ The effect of home-meal value & motivation on participating intention of social dining participants

TARGETING USERS

소비자

20대 대상
(서비스 제공 초기)

Type A. 가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집밥이 먹고 싶은 사람들)

Type B. 저렴한 가격을 찾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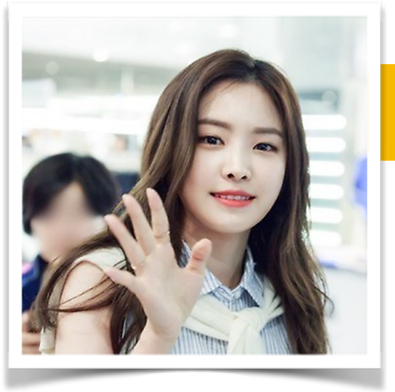
Type C. 가까운 위치를 찾는 사람들

Type A. (독립,유학,군복무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집을 떠난 가정집

Type B. 요리를 해서 나눠먹고 싶은 사람들(또는 수익 목적)

판매자

PERSONA



가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집밥이 먹고 싶은 사람들)

예상 고객의 이름 / 인구학적정보

김나은
22세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취생 (오전 9시 등교, 3시 하교)

고객의 불편(불만) / 니즈(기대)

자취를 혼자 하는 데에서 오는 그리움이 크다. 특히 밥 시간 때마다 찾아오는 공허함과 쓸쓸함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배달 음식과 식당의 조미료 맛에 질린 것도 오래지만, 친구들과 밥 약속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음식을 먹는 것이 쓸쓸하다.

잠재적 해결안
(현재의 해결하고 있는 방식이나 가능방안)

최대한 친구들과의 약속을 많이 잡는다. 그러고도 외로울 때는 먼 거리이지만 지방에 있는 본가를 찾아가는 수밖에는 없다.

PERSONA

저렴한 가격을 찾는 사람들

예상 고객의 이름 / 인구학적정보

연돌이
24세
서울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자취생 (오전 11시 등교, 5시 하교)
서울시 강서구 소재의 오피스텔 거주(1인 가구)

고객의 불편(불만) / 니즈(기대)

직접해먹는 요리는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힘들다. 요리를 해봤더니 소질이 없어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는게 고통 그 자체다. 그리고 서울의 오피스텔 거주중이라 월세때문에 식비를 줄여야하는 처지다. 그렇지만 입맛이 까다로워 저렴하지만 완전한 식단을 원한다. 또한 자취의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과 적당히 소통하면서 집밥같은 밥을 지속적으로 저렴하게 먹고 싶다! (대학생이지만 고등학교 급식이 그리워진다.)

잠재적 해결안
(현재의 해결하고 있는 방식이나 가능방안)

가능하면 학교에 오래있어 학식으로 떼우던가 가까운 저렴한 식당을 애용한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어쩔 수 없이 음식을 만들어먹는다.

PERSONA

가까운 위치를 찾는 사람들

예상 고객의 이름 / 인구학적정보

김정태
25세
현재 고시 준비중인 휴학생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 거주(1인 가구)

고객의 불편(불만) / 니즈(기대)

공인회계사를 준비하기 위해 휴학을 하고 현재 노량진에 있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다. 고시 준비 때문에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밥을 먹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루 이틀 준비하는 시험은 아니기에 언제까지고 편의점 도시락과 밥버거를 먹으며 지내기는 고민이 된다. 집밥이라고 파는 식당들의 MSG맛에 넌더리가 날 지경이다. 가까운 곳에서 조금이나마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잠재적 해결안
(현재의 해결하고 있는 방식이나 가능방안)

가까운 곳에 사는 가정집으로 찾아가 일정량의 돈을 지불하고 집밥을 먹는다. 하숙느낌처럼 밥을 해 주면 먹는 것과 비슷하지만, 하숙은 비용이 비싸다는 점과 집밥 서비스는 가족을 위해 차려진 밥을 먹는다는 점에서 다르다.

PERSONA

(독립,유학,군복무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집을 떠난 가정집

예상 고객의 이름 / 인구학적정보

박미정 53세 주부 34년 차

가족 구성원: 57세 남편, 29세 아들, 24세 딸

고객의 불편(불만) / 니즈(기대)

딸은 유학 중에 있고 아들이 독립 한 이후부터 부부 둘이 생활하게 되었다. 자녀들이 없는 적적함도 힘들지만 더 큰 고민은 요리이다. 남편 때문에,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 아들과 방학 때마다 귀국하는 딸 때문에도 밥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매번 남는 음식들이 부담된다. 4인분의 요리를 하는 게 습관이 되기도 해서 양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가끔 하루 이틀 집을 비우는 날이 생기기라도 하면 국을 데워놓지도 않는 남편 때문에 상한 음식을 처리하는 거도 고역이다(특히 여름에). 밥은 용기에 한 공기씩 넣어 얼려놓고 끼니때마다 꺼내 먹지만 사람이 자로 잰듯하게 딱 한 공기만 먹으란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또한 음식물 쓰레기가 생겨서 문제이다. 밑반찬 들은 독립 중인 아들에게 챙겨주지만 번거롭기도 하고 그 양이 적어 사실상 달라지는 점은 없었다.

잠재적 해결안

(현재의 해결하고 있는 방식이나 가능방안)

서비스를 이용해 박미정 씨의 가정식을 셰어한다. 주변 집밥이 그리운 1인 가구들이 찾아와 함께 밥을 먹으면 잔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조용했던 부부 둘만의 식탁을 채워줄 소비자가 찾아온다면 허전했던 저녁시간도 더욱 화목해질 것이다. 박미정 씨의 경우 어려웠던 요리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고민들까지도 이로써 해결할 수 있다.

PERSONA

요리를 해서 나눠먹고 싶은 사람들(또는 수익 목적)

예상 고객의 이름 / 인구학적정보

김나연, 42세
시 문화센터에서 근무 (9시 출근 7시 퇴근)
서울시 강동구 소재의 오피스텔 거주(1인 가구)
취미가 요리와 베이킹

고객의 불편(불만) / 니즈(기대)

지난 건강 검진 결과 위염과 고혈압 진단을 받고 규칙적이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 노력중이다. 매번 도시락을 싸가려고 생각하지만 1인분만 요리하기에는 식재료 구입이 마땅치 않고, 요리한 도시락을 냉동보관해서 먹으니 음식의 신선도와 식감이 좋지않다. 매일 아침 제공되는 샐러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해봤으나 양이 적고 비용이 부담되어 그만두었다.

잠재적 해결안
(현재의 해결하고 있는 방식이나 가능방안)

서요리한 도시락을 소분하여 냉동보관한다.

CONTEXT SCENARIO

PERSONA	SCENARIO	FUNCTIONAL NEEDS
가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1. 대학에 들어오고 나서 자취를 한 지도 3년차, 편의점 음식과 배달 음식에는 이미 질린지 오래다. 백반을 파는 식당을 수소문해봐도 식당 특유의 조미료 맛만 느껴진다. 집의 따뜻한 분위기와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건강한 맛의 가정식을 먹고 싶다.	판매자가 올려놓은 음식의 정보(원산지 정보, 메뉴 정보, 하루권장 섭취 영양소, 칼로리 등)를 소비자가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사용자는 한식(웰빙류), 일식, 양식 등 음식의 종류 및 성향을 선택할 수 있다.
저렴한 가격을 찾는 사람들	#2. 오피스텔 주변식당은 매 끼니를 해결하기엔 가격대가 높다.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플에서 검색해보니 내 마음에 드는 메뉴를 제공하면서 합리적인 가격을 업로드한 판매자를 찾았다!	가격순으로 정보를 필터링 할 수 있으며, 본인이 설정해 놓은 가격대의 음식 정보가 업로드되면 소비자에게 알람이 제공된다. 밥내나'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cash를 충전할 수 있다. 삼성페이나 기타 모바일 결제시스템으로 결제 가능하며, 앱에 계좌를 등록해 놓으면 cash를 간편하게 충전할 수 있다. / '밥내나' 전용 멤버쉽 포인트 적립 기능 제공
가까운 위치를 찾는 사람	#3. 고시를 코앞에 두고 고시원에서 김정태(25)는 CPA 시험이 코앞이라 시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하지만 시험 공부를 위해서라면 식단도 중요하다.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시험준비로 받은 스트레스를 위로해줄 따뜻한 집밥을 가까운 곳에서 먹고 싶다.	사용자로부터 반경 1km(도보로 편도 15분 이내 거리 - 거리 설정 가능)에 등록된 집밥 판매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맵에 제공

CONTEXT SCENARIO

PERSONA	SCENARIO	FUNCTIONAL NEEDS
(독립,유학,군복무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집을 떠난 가정집	#4. 아들과 딸들을 다 키워 독립시켰더니 집안이 너무 적적하다. 그리고 남편 때문에, 언제 방문할지 모르는 아들과 방학 때마다 귀국하는 딸 때문에도 밥을 안 할 수는 없지만 매번 남는 음식들이 부담된다. 4인분의 요리를 하는 게 습관이 되기도 해서 양 조절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집에 들일 수 있는 소비자 나이를 20대 대학생으로 한정시킬 수 있으며, 단골 손님으로 설정하면 언제 식사를 하러 오는지 스케줄러가 제공된다. 단골 손님과의 교류가 가능하도록 앱 내 메신저 서비스 제공
요리를 해서 나눠먹고 싶은 사람들(또는 수익 목적)	#5. 1인가구면서 요리하는 것을 워낙 좋아하는데, 남는 음식이 많을까봐 엄두가 나질 못한다. 그래서 내가 만든 음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어떨까 고민을 자주 한다. 하지만 혼자사는데 모르는 사람을 우리 집에 들이기는 부담스럽고, 포장 판매를 할 순 없을까? 판매를 할 수 있다면 요리도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고, 보조 수익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앱에 '판매자'신분으로 접속할 경우, 포장 판매 기능이 있다. 직접 집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것보다 포장 판매는 소비자와의 시간조율에 있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 - 예약 판매 기능 등 / 원재료 값(수치)만 입력하면 수익창출 리포트를 어플이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한 눈에 알기 쉬움

CORE FUNCTION

밥내나의 결제 시스템은 본 서비스의 컨셉인 하숙, 홈스테이 감성을 유지하는데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며, 상호간 거래의 핵심 요소이다.

INTERVIEW

Type A. 가정식을 추구하는 사람들 (집밥이 먹고 싶은 사람들)

소비자가 생각하는 집밥(가정식)의 기준은 무엇인가?
1인가구는 평소에 무엇을 주로 먹는가?
(음식을 해먹는다면 어떤 메뉴를 먹고, 요리하는데 소요시간은 얼마나걸리는지, 외식한다면 어떤종류를 먹는지)
백반(가정식)을 먹을 때 소비자가 고려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Type B. 저렴한 가격을 찾는 사람들

어느정도의 '가격대'가 상권과 비교했을 때 지불할 용의를 갖게 만드는가?
어느정도의 멤버쉽 적립률(%)이 이 서비스의 지속적 애용을 독려하는가?

TOPIC C. 가까운 거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거래의 지속성 관점)

현재위치로부터 판매자까지의 거리는 어느정도 수준이 괜찮은가?

INTERVIEW

Type A. (독립,유학,군복무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집을 떠난 가정집

소비자를 집에 들일 때 가장 걱정되는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Type B. 요리를 해서 나눠먹고 싶은 사람들(또는 수익 목적)

소비자와의 교류시 신분 열람이 어느정도까지 제공되어야 신뢰성이 확보되는가?

thank you.

BABNANA

Home Meal Sharing Service